

“삼겹살 비싼 이유 있었네”... 납품가 담합 ‘철폐’

공정위, 가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전 모의·입찰에 소비자 부담 커져... 검찰 고발도

설탕, 밀가루, 전분당에 이어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업체들의 담합 계약 금액은 총 190억원에 달하며 과징금은 약 32억원 규모가 부과됐다. 특히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

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제한 사건으로,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돼지고기 가공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적발된 사업자는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또 이중 공정위는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이

마트에서 판매 중인 ‘일반육’(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사료나 원료 등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4차례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에 이른다. 브랜드육은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한다. 업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더 높은 가격의 부담을 소비자들은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04104@gwangnam.co.kr



한국전력공사는 1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과 경영진,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전, 에너지 신사업 ‘기술지주회사’ 설립 본격화

신기술 사업화 전략 논의...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본격화하며 신사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과 경영진,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혁신과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올해 상반기 설립을 추진 중인 한전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보유 특허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전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계획 및 운영 방안’을 시작으로 기업벤처 투자사의 투자 전략과 스타트업 투자

프로세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과제 등이 공유됐다. 김근환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은 기업벤처 투자사의 투자 전략과 지역 거점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유망 기업 발굴과 차별화된 투자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또 이형술 그리네플 대표는 초기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자금·시장 진입 문제 등 도전 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기업형 기술지주회사 운영 전략과 스타트업 발굴·육성 방안을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술지주회사가 자본 투자와 매각, 펀드 운용,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술지주회사가 단순 투자 기능을 넘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한전이 보유한 전국 단위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검증, 멘토링,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 단계별 스타트업 육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 기술지주회사는 국내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9@gwangnam.co.kr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72개국에서 1만1000여 개의 출품작이 접수됐으며, 각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이 이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프로토타입 콘셉트 부문에 ‘옴니 링(Omni Ring)’을 출품해 본상을 받았다. ‘옴니 링’은 미래 교통 시

모듈형 타이어 ‘옴니 링’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입증



스템에 최적화된 모듈형 타이어로, 전 방향 이동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옴니 링’에는 주행 환경 및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도심 시내 환경에서는 소음 저감과 연비 향상을 고려한 촘촘한 빗살무늬 패턴이, 도시 간 이동 환경에서는 고속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강인한 블록 형태의 패턴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김경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전무)은 “금호타이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책임 있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한도 2배 ↑ 산업부, 수입규제 대응 지원 대폭 확대...자부담은 폐지

정부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까다로워지는 수입 규제에 중소·중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글로벌 통상 환경 약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티조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린 것이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업 예산을 전년 10억8000만 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컨설팅 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던 기업 자부담금을 전면 폐지해 비용 때문에 컨설팅을 망설였던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없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

세 위법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합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 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232조 관세 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합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제10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제22회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명운권 추첨

‘영신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 후원사에도 진행합니다.
※ 취·입금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리터데이** | (사)광남문화체육재단 **건락도**

후원(여의): **신진** **전남연구원** **나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대한한림사자 후원회** **광남일보**